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통합 '부정적'

연찬회에서 의원간 찬반 입장 극명하게 엇갈려

김동철·박주선 의원 확장 주장에 유승민 '불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통합 논의의 '1차 변곡점'으로 여겨졌던 바른미래당 연찬회에서 통합에 대한 의원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통합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 양당 통합은 급물살을 탈 수 있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게 표출돼 당분간 통합 협력은 상실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간의 마찰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당 분교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8~9일 경기도 양평에서 국회의원회와 최고위원 연찬회를 갖고 당 정체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일치단결해서 하나가 돼 총선을 준비해 나가자는 목표를 확인했다"면서도 "그 방법론은 다양했다"고 전했다.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대표는 '개혁보수' 노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동철(광주 광산갑)·박주선(광주 동남을)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은 당의 의원 확장과 한국당 견제를 위해 진보를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측면에서 평화당과의 통합 문제가 공식화됐다.

박주선 의원은 "통합정당을 만들기 전의 석수보다 적은 통합정당이 됐다. 그 교훈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다"며 평화당과 통합을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일단은 당의 몸집을, 세를 키워야 한다. 평화당과의 통합은 우리가



8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셰르빌호텔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 연찬회에서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

가야 될 길의 극히 초보적인 단계"고 주장했다.

반면 유 전 대표는 "평화당에 계신 분들이 거기(개혁보수)에 동의하지 않는 한 또 그런 정치의 길을 걸어오시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평화당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통합 관련하여 명확한 스탠스

를 취했다.

결국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이 서로 갈라서고, 당도 쪼개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총선이 다가오면 올 수록 분당은 현실화 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2주 이상 연기 안 하면 후보 등록 거부"

한국당 전대 보이콧 6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하는 당권주자 6인은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친 전당대회를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도 회동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은 공동 명의의 낸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2·27 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며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 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연기가 결정된 후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 롤 미팅을 열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 두 사람만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전망이다. 뉴스

평화당 "한국당 온통 박타령...박근혜 망명 여전"

민주평화당은 9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이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다퉈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박근혜의 망명 여전히 한국당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라곤 친박, 박타령은 '박타령'이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의 면회 신청을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당장 박근혜를 숙주 삼아 좀비정치를 부활시킨 장본인인 황 전 총리가 직격탄

을 맞았다.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좀비 정치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어 "당권주자들이 선심이라도 쓰듯 '박근혜 석방'을 팔아대는 행태도 어이없다"며 "그를 탄핵하고 죄를 묻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라는 숙주에 기표를 쫓는 세력은 보수가 아니라 좀비"라며 "한국당 전당대회에 커진 경고등은 북미회담과 겹친 날짜가 아니라 박타령으로 감염되는 좀비의 창궐"이라고 경고했다. 뉴스

올해 주한미군 분담금 1조389억원

'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내년치 또 증액 협상 부담

한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간 공식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특별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가서명된 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해 최초 약 1조4천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회와 국민을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나,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못해 발

생할 수 있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불과 1년으로 단축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또 임해 다시금 증액 논의를 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을 진행했다.

가서명은 한국 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했다.

가서명에 앞서 베츠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강 장관은 지난 1년여간 방위비 협상과 관련, "아주 길었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과정이었다"며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반응은 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베츠 대표도 이에 화답해 "우리의 논의가 함의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공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국빈행사 의전 장소 중靑 영빈관 세계서 최악"

탁현민 전 행정관 지적

청와대를 떠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10일 "그동안 세계 여러나라의 국빈행사장과 이런저런 의전 행사장소를 둘러 보았지만 고백하건대 아마도 우리나라 영빈관이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탁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파리의 '오페라극장'에서 공연을 보며 청와대 영빈관을 떠올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영빈관'이었다"며 "말이 영빈관이 실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에 어떤 상징도 역사도 스토리텔링도 없는 공간에서 국빈 만찬과 환영 공연 등 여러 국가 행사들을 진행한다는 것이 늘 착잡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한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여려가지가 있겠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 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탁 전 행정관은 "국회에서는 영빈관 개·보수 공사의 예산을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과 정부도 그것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스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가 10일 오전 5박8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

文의장·여야 지도부 방미...국회 정상화 물꼬 틀까

美 의회 지도자 면담 등 한미동맹 지지·한반도 비핵화 공조 논의

여야 대치로 국회 공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가 8일간의 방미길에 오른다.

여야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미단은 10일 출국해 17일 돌아오는 5박8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가 동행한다.

이번 일정은 미국 의회 지도자 면담 등을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됐다.

여야 5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방미 일정 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꼬 틀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여야 극한 대치로 2월 국회 개회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5당 지도부가 동행하는 만큼 문 의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여야가 약속한 1월 말 처리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진전도 관심사다. 뉴스

광주 CBS

광주 CBS 음악FM

2019. 1. 9 개국

CBS 인터넷 라디오
라디오
CBS RADIO



한동준의 <FM팝스>
14:00~16:0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6:00~18:00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18:00~20:00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0:00~22:00

Less Talk More Music

최고의 음악채널

광주 CBS 음악FM

FM 98.1 MHz

■ 대구CBS FM 103.1 / 안동 FM 92.3 / 음악FM 97.1 ■ 부산CBS FM 102.9 / 음악FM 102.1 / 서부산 음악FM 105.3 ■ 광주CBS FM 103.1 / 음악FM 98.1 ■ 전북CBS FM 103.7 / 남원 FM 90.7 / 고창 FM 96.3 ■ 강원CBS FM 93.7 / 홍천 FM 93.7 / 원주 FM 94.9 ■ 대전CBS FM 91.7 / 홍성 FM 99.3 ■ 울산CBS FM 100.3 ■ 포항CBS FM 91.5 ■ 경남CBS FM 106.9 / 진주 FM 94.1 ■ 제주CBS FM 93.3 / 서귀포 FM 90.9 / 어음 FM 90.9 ■ 강원영동CBS FM 91.5 ■ 전남CBS FM 102.1 / 순천 FM 89.5 ■ 청주CBS FM 91.5